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공동체 가을 클래식 공연 성료

교직원 문화예술 연수· '첼로덕과 친구들' 클래식 공연에 감동 듬뿍 여주시민과 함께 가을 음악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은 문화예술적 소양과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문화예술공연에 열의를 다하고 있다.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은 지난 10월 28일 대공연장에서, '파워 유튜브 첼로덕(조윤경)과 밀레니엄앙상블, 바리톤 정태준'을 초청하여 가을 음악회 2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공연에서는 학교 교직원 300여명이 참여하는 '라움 교직원 아카데미 연수'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석곡중

유성우 교장선생님이 강사로 나섰다. 2부에서는 시크릿 가든 OST 연주를 시작으로 첼로덕과 밀레니엄 앙상블의 클래식 공연이 90분간 이어졌다. 두 번째 공연에서는 '여주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로 지역민 350여명이 참석했다. 첼로덕과 앙상블은 러브어페어 OST, 시네마 천국 OST, 광화문 연가 협연으로 가을을 붉게 물들였다. 바리톤 정태준은 '10월 어느 멋진 날'에 피날레를 장식했다. 공연을 관람한 어느 교사는 "수준 높은 공

연으로 감성이 풍성해진 기분이다. 수업시간에 5분 클래식 음악회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 지역민은 "파워 유튜브 첼로덕 조윤경님 열혈팬으로서, 여수에서 연주를 듣게 되어 너무 기쁘다. 문화회관이 있어 너무 행복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학생교육문화회관 관계자는 뜨거운 관심에, 라움 교직원 아카데미를 7월에 이어 개최했고, 지역민을 위한 겨울 음악회를 또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김형신 관장은 "우리 회관은 학교에 뮤지컬 등 연간 200회 공연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교직원과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재환기자



목포백련초, 예술제 'Show ME The 백련' 개최

목포백련초등학교 전교생 1070명은 지난 10월 28일 예술제를 통해 학교 교육활동을 보다 심화시켜 스스로 소질을 개발하여 탐구하는 기회를 얻고, 평소 갖고있던 기량을 마음껏 발표·전시하였다. 강당 공연장에서는 귀여운 학생들의 댄스와 연주, 개성 있는 안무와 합창,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퍼포먼스 등 공연이 이어져 실재 없이 박수와 환호성을 받았다. 난타, 댄스, 악기연주, 블랙라이트, 칼림바, 음악줄넘기, 부채춤, 태권도, 합창 등 총 36개 종목으로 공연무대가 펼쳐지고, 500여명의 지역민과 학부모들이 관람하였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들을 위해 공연 무대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송출하였다.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의 개성을 살린 44개의 체험 부스가 배너와 함께 줄지어 늘어섰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껏 꾸며 낸 2층 특별전 시장에서는 백련 꼬마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으로 학생들의 참여 폭을 넓히면서 모두가 즐기고 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전교학생회에서도 먹거리, 만들기, 문화 ZONE 등의 백련 스탬프 투어를 기획하여 배움과 성장의 백련 축제라는 슬로건을 실천하고, 풍성한 축제의 참여도를 높였다. 운동장 가득 줄지어 늘어선 체험 부스의 전막에서는 학생들의 웃음소리, 학부모의 행복한 미소, 마이크를 잡은 교사의 응성이 아우러져 학교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진풍경이 펼쳐졌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이후 3년여 만에 학부모에게 학교를 개방하고, 학부모회 주도로 9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을 위한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여 떡볶이, 꼬치구이, 순대, 어묵, 팝콘, 솜사탕 등을 학생들에게 무료 제공해 주며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교육의 의미를 다시금 되짚어 보게 한 뜻깊은 행사였다. 김형만 교장 선생님은 백련 교육의 희망과 기쁨을 엿보는 즐거움이 곳곳에서 넘쳐나는 현장을 보니 대견했고,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와 협동하는 태도가 길러진 값진 행사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백련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목포=기동취재본부

고흥 풍양초, 특색교육활동 '도전활동'으로 스케이트 타기 체험



풍양초등학교는 10월 28일 전교생이 부영아이스링크(장양)에서 스케이트 타기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풍양초의 특색교육활동인 '1인 1륜 타기'의 도전활동으로 추진된 오늘 행

스포츠의 재미·멋 더하도록 계획

사는 3월 초부터 교과 및 방과후학습을 통해 배우고 익힌 인라인 타기의 학습 효과를 얼음판 위에서 도전해 보는 이색체험활동으로 이뤄졌다.

학생들은 우리 주위의 많은 탈 것을 이용한 스포츠 활동 중 인라인 타기를 생활화하여 안정된 자세와 빠른 주행, 그리고 적절한 회전 등을 빙상의 스케이트 활동으로 구현하는 활동을 통해 스포츠의 재미와 멋을 더하도록 계획되었다.

처음에는 얼음판 위에서 자세 잡기도 힘들어 하던 저학년 학생들은 빙상장의 코치선생님과 본교 고학년 학생들의 도움으로 점차 얼음 위를 미끄러지면서 스케이트의 세계 속에

입문하기 시작했다.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땀이 난 얼굴로 활짝 웃으며 지도교사에게 손을 흔드는 학생들을 보면서 빙상장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 또 하나의 세상으로 자신을 넓혀가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빙상장을 찾은 4학년 이O올 학생은 "얼음 위라 쉽게 미끄러질 줄 알았는데 내 몸이 안전하게 중심을 맞추며 얼음 위를 질주하고 있을 때 정말 최고였다. 내가 얼음 위에서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았다"며 기쁨을 전했다.

이번 체험을 통해 학교는 새로운 도전활동을 발굴하여 학생들의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진로의 탐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진도공공도서관, 찾아온 '추억의 인형극장 딱지왕'

관객 참여형 연극 공연, 관람객에 생생한 즐거움 선사

진도공공도서관이 10월 29일 토요일 강당에서 지역주민 70여 명을 대상으로 '추억의 인형극장 딱지왕' 연극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 전문예술극단 '목포극단아띠'를 초청하여 딱지왕이 되고 싶은 꼬마 동구의 이야기를 7080년대 감성이 녹아 있는 레트로한 무대 연출과 생동감 있는 연기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버스 안내양, 변소, 마장가Z, 만화 캔디 등 어른들에게 추억의 향수가 담긴 내용과 참여형 연극으로 관객이 작품 속 인물들과 즐겁게 소통하고, 직접 무대에 올라 주인공이 되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공연 관람 후 딱지왕 선발대회로 고급딱지를 선물해 공연장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진도=조상용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